

목욕탕 '돌연사' 주의보

목욕탕 이용자들이 탕 안에서 돌연사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오전 8시10분께 순천시 장천동 R목욕탕에서 김모(74·순천시 장천동)씨가 고온탕 안에 숨겨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들은 "김씨가 탕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않아 가보니 숨을 쉬지 않아서 인공 호흡을 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7시께 목욕탕에 들어와서 수온이 42~45도에 이르는 '고온탕'에서만 30분

광주·전남 4개월 새 4명 숨져 "사우나·고온탕 자제" 안내문

이상 물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령인 김씨가 최근 들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심장마비로 인해 돌연사할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M사우나 온탕에 배모(39·광주시 서구 화정동)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생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배씨의 동생은 경찰에서 "함께 목욕을 하다가 형이 물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공호흡을 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진 배씨는 경찰의 부검 결과,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등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에도 광주시 남구 방림동 S목욕탕에서 만취상태로 탕에 들어간 윤모(43)씨가 심장마비로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는 고혈압을 앓던 조모(73)씨가 북구 우산동에 있는 목욕탕 온탕에서 목욕을 하다 숨졌다.

한편 목욕업계는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와 고온탕 이용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을 목욕탕 내부에 게재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혈압·심장병 환자 '냉온 교대욕' 피하라"

심혈관계 전문의들은 노약자와 고혈압·심장병 환자 등은 온탕과 냉탕에 번갈아 들어가는 '냉온 교대욕'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갑작스런 혈관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이 높아져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광주 '미래로 21 병원' 순환기 내과 박종철(42)원장은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피부의 혈관이 확장돼 표피로 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심장과 뇌에 무리를 준다"면서 "고혈압·심장질환·고

지혈증·당뇨 환자, 만취자 등이 뜨거운 물에서 오래 목욕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 뜨거운 물에서는 반신만 담고, 목욕시간도 짧아야 한다"면서 "특히 목욕 도중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꿀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30대와 40대라도 심장질환 등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사우나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건강 목욕' 5계명

- ① 심장질환 등의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는 의사의 지도를 받는다.
- ② 고혈압·당뇨·심장 질환자·노약자의 경우 뜨거운 목욕을 삼가라.
- ③ 고온욕을 할 경우 전신을 담그지 말고, 반신욕 하라.
- ④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냉·온 교대욕을 피하라.
- ⑤ 고온욕을 한 뒤 갑자기 일어나지 마라.



광주에서도 反戰 퍼포먼스 광주전남녹색연합, 6·15실천연대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3·17광주국제공동반전행동' 회원들이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산동 문화전당 홍보관 앞에서 '이리크 침공 4년 규탄' 집회 도중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날뛰는 강도 허찔린 경찰

광주, 노래방 등 강도 잇따라... 경찰 순찰 피해 범행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사건에 대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를 펼치고 있음에도 휴일 새벽 편의점 강도와 납치 등 3건의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8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S아파트 인근 S편의점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편의점 종업원 강모(20)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담배를 달라고 해서 건네 줬는데 범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척하다가 흉기를 꺼내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이 165cm 정도의 키에 갈색 점퍼를 입고 스포츠형 머리를

했다는 강씨의 진술과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토대로 동태주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앞선 새벽 5시경에는 광주시 남구 주월동 주택가 박모(여·26)씨의 원뿔에 도둑이 침입해 현금 5만 원 가량을 훔쳐갔다. 박씨는 "얼굴에 수건이 놓여 있어서 잠을 깬데, 누군가가 방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은 박씨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뒤 범행을 저질러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같은 날 새벽 12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육교 인근을 지나던 김모(여·45·광주 북구 문흥동)씨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 의해 상품권 등 28만원 상당과 신용카드가 들어있

는 핸드백을 빼앗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노래방 강도사건 이후 광주 지역에 노래방·편의점 강도와 납치 등 범인검거에 특진을 내걸고, 새벽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은 이날 강력반 4개 팀 중 2개팀 2인 8개조와 의경 67명이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관내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에 대해 순찰을 벌였

다. 하지만, 범인은 순찰병력이 철수한 새벽 5시 이후 범행하는 대담함을 보여 순찰에만 의존하는 경찰의 허를 찔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건조한 날씨 산불 4건 잇따라

건조한 날씨속에 18일 광주·전남에서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10분께 영광군 여산면 봉덕산에서 불이나 3.5ha를 태우고 출동한 산림청 소속 헬기 5대와 소방관 270여명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은 주민 강모(여·70)씨가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이 난 것을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후 4시 2분께도 광주 서구 세하동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1ha를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다.

앞서 오후 3시 30분께는 신안군 안좌면 좌리리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3ha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고, 오후 1시 10분께는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3ha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폭식증' 20대 여성 수술 뒤 숨져

병원 과실여부 수사

폭식증을 앓던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졌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C대학병원에서 유모(여·25·광주시 동구 지산동)씨가 숨졌다.

유씨는 지난 16일 저녁,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 위 속의 음식물을 빼내

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이었다.

경찰은 평소 유씨가 폭식 후 자주 구토를 했으며, 이날은 구토도 볼 수 없게 병원까지 실려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의 부모가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수서도 "자녀 납치" 전화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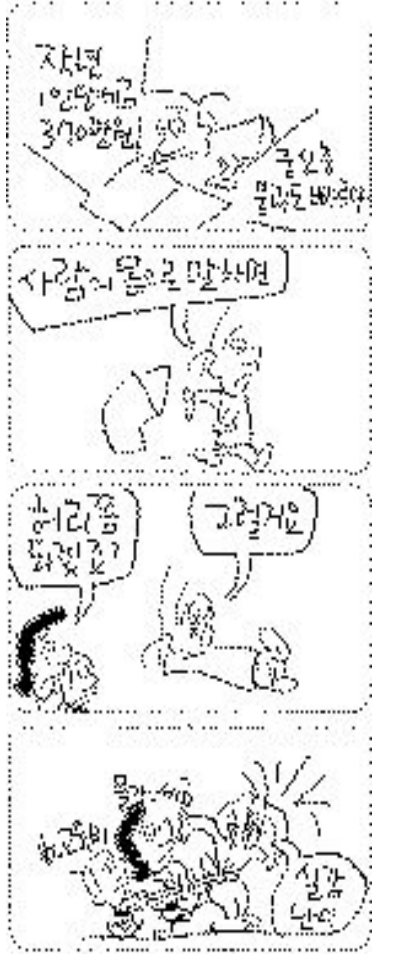
여수에서도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경 여수시 여서동 김모(여·55)씨가 아들(27)을 납치했다는 전화에 속아 현금 50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를 당했다.

김씨는 돈을 보낸 뒤 아들에게 연락, 아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

용의자는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고 미리 녹음된 남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나원침 (7080) 김중두



광주전남도지회 중흥특별을 우리는 3.6.30 피대연계! (광안면 4·4·4 4대 4대 4대) 수현선도시 피오래 (062) 367-9000

승용차 충돌 7명 부상

18일 오전 10시50분께 장흥군 장평면 어곡리 삼정마을 앞길에서 정모(25)씨가 운전하던 코란도가 앞서가던 그랜저XG 승용차(운전자 정모씨·51)와 충돌,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흥=김용기기자 kykim@

'질투' 50대 여성 내연남 집서 행패

○한 때 동거했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지 9개월도 못 돼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에 격분, 행패를 부리던 50대 여성이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이 18일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노모(여·51)씨를 입건했는데, 노씨는 이날 새벽 2시경 광주 북구 중흥동 고모(45)씨 집에 찾아갔다 여자 숙음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동행한 언니(60)와 함께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

○노씨는 "10년간 동거하다 9개월 전에 헤어졌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것이 화가 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 /정성필기자 camus@

국제약품 기업선교 기증 혹은 기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약품 기증선교 기증 혹은 기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ipharm.co.kr

"어보" 사랑에!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력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력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람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SENSTICK